

“가야금 착안, 한국의 미 디자인 했어요”

김해란 금바다꽃예술중앙회장, 세계꽃꽂이대회 참가
한국 대표 ‘컨트리디자인’ 부문 실연 현지서 큰 호평

“한국적 작품을 세계인에게 알리기 위해 전통악기인 가야금에서 모티브를 얻어 한국의 미를 표현하게 됐습니다.”

세계 각국 플로리스트들의 축제인 세계꽃꽂이대회(World Flower Council); 이하 WFC)에 최근 김해란 금바다꽃예술중앙회장이 한국 대표로 참석, ‘컨트리디자인’ 실연을 가져 호평을 받았다.

지난달 17~20일 호주 브리즈번 W호텔에서 열린 WFC는 전 세계 23개국 대표들이 참가해 각 나라의 대표 꽃디자인을 선보이는 자리로 한국에서는 한국플라워디자인협회 이민숙 이사장과 김해란 금바다꽃예술중앙회장 등 대표단 6명이 참가했다.

김해란 회장의 컨트리디자인은 한국 전통악기인 가야금의 12현에서 모티브를 얻은 작품으로 일상에서 쓰는 가는 고무줄을 엮어 가야금을 연상하는 구조물을 만들고, 여기에 가야금의 음률을 형상화한 곡선의 나무 선과 꽃으로 리듬감을 표현해 냈다.

김 회장은 “고무밴드를 활용함으로써 꽃의 율동성을 표현했고, 형태를 잡을 때도 기존과 이어가 필요없이 꽃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해 기능성과 형태 구성에 있어 유용했다”며 “한국적 소재와 어우러진 한국의 미가 세계인의 관심을 받았다”고 전했다.

또 “2015년 방콕, 2017년 광저우에 이어 세 번째 참여하는 WFC인데, 이번에는 한국 대표라는 무게감이 남달랐다. 나라별로 비교가 되는 자리라 준비를 많이 했고, 특히 한국적 디자인에 비중을 두고 작품을 구상했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지난 2015년 방콕 대회에서는 전통 농기구인 ‘키’를 활용해 풍성한 한국의 가을을 소개했고, 2017년 광저우에서는 바디플라워 디자인 부문에서 ‘어우름’의 모자에 꽃을 장식한 작품으로 한국의 미를 널리 알리기도 했다.

한편 꽃의 문화와 발전방안을 논의하며 세계 화훼디자인자들의 정보 교류와 친목을 다



김해란 금바다꽃예술중앙회장이 지난달 17~20일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세계꽃꽂이대회에서 한국 대표로 ‘컨트리디자인’ 부문 전시 실연을 하고 있다.

지는 장인 WFC는 지난 1984년부터 개최돼 왔으며, 내년에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해란 회장은 지난 2016년 창립한 금바다꽃예술중앙회는 (사)한국플라워디자인협회 소속으로 꽃예술을 공부하고 활발한 작품활동을 펼치며 지역 꽃예술의 저변을 확대해 오

고 있는 예술단체다.

김 회장은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힐링실 내정원 전담강사, 광주교대 평생교육원 실내정원 전담강사, JMG Korea 리더강사 등을 역임했으며, 독일 FDF 플로리스트, 독일 IHK 스타일리스트, 독일 FDF 마이스터, 화훼장식기사를 취득했다. /이연수 기자

‘히로애락’

유·스퀘어 문화관 사진공모전 접수

유·스퀘어 문화관이 오는 16일까지 ‘제12회 아름다운 유·스퀘어 사진 공모전’ 사진을 접수한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히로애락’이다. 최우수 1점, 우수 2점, 장려 3점, 입선 20점 등 총 26점을 선정하며, 입선작들은 시민 전시공간인 2층 유·스퀘어 야외갤러리에 전시된다.

입상자에게는 백화점 상품권, CGV영화 관람권, 뮤지컬 ‘달동네 콤플렉스’ 초대권 등이 주어진다.

작품은 개인당 5점까지 응모 가능하며, 디지털 이미지(JPG, JPEG)형식의 파일만 제출할 수 있다.

접수는 유·스퀘어 문화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은 후, 작성한 신청서를 사진파일과 함께 담당자 메일(u_square12@naver.com)로 보내면 된다.

문의 062-360-8431. /이연수 기자



왕치양 작 ‘fight for beauty and fight colors’

가수 이동원과 함께하는 스크린의 향수

CNS 윈드오케스트라, 3일 정기연주회

CNS 윈드오케스트라(단장 한성모) 제11회 정기연주회가 오는 3일 오후 7시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가수 이동원과 함께하는 스크린의 향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연주회에는 가수 이동원이 출연해 ‘향수’, ‘가을편지’를 들려줄 예정

이다. 또 50인조로 구성된 윈드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선율은 광주시립교향악단 상임단원 추선호의 지휘로 ‘라라랜드’, ‘캐리비언의 해적’, ‘룩키’ 등 주옥같은 영화음악의 주제곡들을 연주, 가을밤의 낭만을 선사한다. /이연수 기자



지휘 추선호 가수 이동원 테너 유정석

금속공예 3인 아트주얼리전

내달 10일까지 양림동 515갤러리

우리 지역에서 보기 힘든 금속공예 전시가 마련됐다.

양림동 515갤러리는 오는 11월 10일까지 김수연, 김희양, 이지 3인의 금속공예 작가를 초청해 ‘Jewelry Breeze’란 주제로 아트주얼리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공예의 예술성과 현대적인 실용성을 보여주는 전시로 다양한 재료를 통해 세련된 감각의 도시적 디자인을 선보인다.

세 명의 작가는 서울과 독일, 유럽, 미국 등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김수연 작가는 디지털 프로세스와 장신구의 결합으로 시각적 영감을 촉감으로 표현해 낸다. 증식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김희양 작가는 버섯이 자라는 모습을 조형적 장신구로 만들어 낸다.

이지 작가는 프레스 기법과 가죽을 활용해 새로운 느낌의 장신구를 선보인다.

문의 062-654-3003. /이연수 기자



김희양 작 ‘군집’



이지 작 ‘Pins’

동양정신에 대한 다양한 해석의재미미술관, 한중미술교류전

의재문화재단은 의재 허백련의 삶과 예술적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새로운 시대정신으로서 동양정신과 예술세계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모색하기 위한 일환으로 한국과 중국의 젊은 작가들을 초청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동양정신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모색하는 이번 한중미술교류전은 ‘동양정신, 예술을 피우다’를 주제로 오는 11월 11일까지 의재미술관 전시실에서 열린다.

참여작가는 중국의 경우, 왕치양, 탄리제, 인송, 한국의 권승찬, 김영아, 나지수, 최재석 작가다.

이들은 중국과 한국에서 유화, 설치미술, 미디어아트와 같은 다양한 매체로 작업하는 젊고 역량 있는 작가들로서 상호간 우의를 다지고 동양정신의 다채로운 면을 선보이는 자리를 제공한다. /이연수 기자

www.jndn.com 인터넷으로 기사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지방신문을 살려야 지역이 발전하고, 지역이 살아야 우리나라가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상쾌한 아침을 여는 신문!
독자에게 새롭고 정확한 뉴스!!
소신과 대안이 있는 정보!!!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여운을 선도하며,
소통과 화합을 통해 지역신문 발전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 전남매일 광주 시내지국 현황

■ 동구	중앙 223-2378 010-3635-1195
	총장 233-4123 010-7755-8824
	학운 225-0651 010-3640-2454
■ 서구	광천 374-2126 010-9602-2565
	쌍촌 372-6659 010-6636-2775
	화정 381-2156 010-4235-0902
	상무 372-7625 010-5013-3889
	풍암 681-3179 010-6634-5084
■ 남구	봉선 653-1920 010-9474-0212
	진월 653-6900 010-5662-7449
	월산 010-8245-1625
	남부 651-1833 010-2943-8016
	송하 010-8620-1925

■ 북구	운암 525-3761 010-6886-3761
	양산 574-3745 010-2646-3205
	오치 261-9461 010-3629-0146
	문흥 261-9462 010-7601-4480
	일곡 573-3200 010-9273-0105
	두암 264-7074 010-2684-6091
	중흥 433-1503 010-4601-2080
	북부 222-2524 010-2656-4543
■ 광산구	첨단 971-7374 010-3613-2312
	신가 952-4864 010-3648-2549
	월곡 952-1687 010-3612-1687
	우산 951-9954 010-5018-0024
	수완 959-1414 010-3101-2526
	송정 941-7070 010-3976-0123
	혁신 010-4623-9622

■ 전남매일 시·군 지사 현황

광산지사 010-3601-1102	담양지사 010-4154-8277	영암지사 010-4624-8409
목포(갑) 010-3272-2765	곡성지사 010-6764-6100	무안지사 010-3621-8989
목포(을) 010-3635-6777	구례지사 010-5431-4006	함평지사 010-3773-2522
목포(병) 011-632-0323	고흥지사 010-9151-2828	영광지사 010-8666-2882
여수지사 010-8648-1236	보성지사 010-3601-2060	장성지사 010-3666-1300
순천지사 010-2547-7890	화순지사 010-3666-5888	완도지사 010-5619-7020
나주(갑) 010-5617-2605	장흥지사 010-3613-6114	진도지사 010-3624-4777
나주(을) 010-3713-7458	강진지사 010-6646-1241	신안지사 010-4627-1472
광양지사 010-3622-9898	해남지사 010-8181-2627	

M 전남매일 광주광역시 북구 제봉로 322(중흥동) 대표전화 062) 720-1000 / 구독신청 및 배달문의 062) 720-1098
팩스 : 월간국·관리국·사업국·판매국·광고국 062) 720-1020 / 편집국·기사제보 062-720-1080-82
이메일 편집국 : jndn@chol.com 관리국 : jsm7139@nate.com 월간국 : jnreviews@hanmail.net
광고국 : jmi1000@hanmail.net 마라톤대회 : 0518run@hanmail.net 글짓기대회 : peace20090818@hanmail.net